STARCRAFT II
HEART OF THE SWARM
산성의 상처
안토니 존스톤
BLIZZARD
ENTERTAINMENT

크라쿨브, 2504

"우린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전부 포를 맡아!"

브라흐 트라이커 대위는 중화기 플랫폼에서 급히 몸을 돌리고는 중앙 지휘부로 달려갔다. 육중한 CMC 전투복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브라흐는 한 걸음마다 세 계단을 뛰어올랐다. 등 뒤에서는 발포음이 산발적으로 들려왔다. 30 분 동안 의료선들이 줄을 지어 크라쿨브 기지에서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있었다. 해병들은 자신들이 그 다음인줄 알았지만, 방금 그들에게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크라쿨브는 자치령 영역 외곽에 위치한 비밀 위성으로, 저그의 침공을 사전에 경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첫 번째 조우 전쟁 이후, 기지가 처음 세워진 무렵에는 의료선들에 모든 사람들이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기지가 커지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의료선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버렸다. 브라흐는 사람들이 현실에 안주하면서 체중이 늘어난 까닭이라고 하지만.

전투 요원과 핵심 인물을 제외하고 모든 자들을 대피시키라고 소령이 명령했다. 브라흐도 소령의 결정에 동의했지만 뭔가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첫 공격이 감행된 때는 해질녘이었다. 말이 안 된다. 명색이 감시 위성인데 왜 공격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을까? 이유가 어찌 됐든 10 분만에

위성의 인구 중 4 분의 1 이 사망했다. 생존자들은 모두 대피했고 단 한 대의 의료선만이 남았다. 그리고 구축함이 도달할 때까지 백 여명의 해병과 함께 저그의 대대적인 침공에 맞서야 한다.

출입구가 열리자 브라흐는 중앙 지휘부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구축함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지?”

사령관 리 트라이커 소령이 상황 콘솔을 쳐다보며 대답했다. “여섯 시간입니다.”

“여섯 시간이라니! 리, 도저히 그때까지는 안 돼! 크라쿨브는 이런 대규모 공격에 대처할 수단이 없다고!”

중앙 지휘부를 운용하는 인원들의 대부분은 대피를 마치고 대여섯 명만이 남아 전술 명령을 이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여섯 명 모두가 때마침 무언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한 양 콘솔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리는 브라흐를 향해 냉정한 시선을 보냈다. 브라흐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내에게 딱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이것이었다. 그녀는 절대로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다. 누가 봐도 그럴만한 상황에서도 말이다. 가끔씩 브라흐는 리를 부여잡고 흔들어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보라고 다그치고 싶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평이한 톤으로 그녀가 말했다. “항복할까요? 백기를 흔들면 저그가 회개하여 내면에 잠들어 있는 평화주의적 본능을 깨우치리라고 보십니까?”

“반격하자는 거지. 여기에 틀어박혀 놈들이 오는 걸 기다릴 수 만은 없어.”

"밤까마귀 정찰대가 이미 나가서 상황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보고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러니 여기 와서 저를 좀 도와주시죠. 아니면 당신의 특기인 사기를 북돋는 언어폭력을 대원들에게 행사하러 가시든지요."

잠시 멈칫한 브라흐는 곧 리 옆에 섰다. 그리고는 전투복으로 덮인 손을 내밀어 장갑을 낀 그녀의 손을 붙잡고 부드럽게 쥐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다.

피식하는 웃음을 건넨 그녀는 다시 콘솔을 바라보았다. "여기 이 대형을 보세요…"

* * *

가르잭스, 2501

정오 1 시간 전. 일리아나 조레스는 보안 모니터의 전원을 껐다. 생태관 초소들을 모두 둘러보고 20 분이 지났다. 예정보다 일찍이고 아무런 이상도 없다. 언제나 그랬듯이. 가르잭스는 조그만 행성계에 있는 작은 행성이었다. 테란의 영토 가장자리에 있어 시끌벅적한 자치령의 소식도 들리지 않는 가르잭스에는 숲속의 야생 짐승 이상의 지능을 가진 생물이 없다.

바로 그것이 일리아나가 회사에 요구한 바였다. 전직 해병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그녀는 전쟁에서 온갖 일을 다 겪었다. 경제 생활에 도움이 될 능력이 없던 일리아나는 프리랜서 경비원이라는 일을 맡게 되었고 이곳에 오게 된 것이다. 가르잭스 지면의 대부분은 냉각복 없이는

견디기 힘들 만큼 습한 열대 우림 지역이고, 행성의 태반을 차지하는 바다조차도 웬만한 열탕에 버금갈 정도로 뜨겁다.

하지만 이곳에는 아무런 사건도, 흥미거리도 없다. 오직 그녀와 열 명의 과학자들, 그리고 열기. 일리아나가 딱 원하는 것이다.

* * *

베히모스는 신음 소리를 내며 전투에서 얻은 상처의 고통을 떨쳐내기 위해 이리저리로 육중한 몸집을 흔들었다. 괴수는 코프룰루 구역의 외곽에서 프로토스 함대의 기습 공격을 받았고,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전투는 끝났지만 베히모스는 급격하게 체력을 잃고 있었다. 괴수의 목숨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안에는 수 천의 저그가 있다. 베히모스가 쓰러진다면 그들 또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우주를 넘나드는 것은 괴수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어느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늙은 베히모스는 힘을 축적하기 위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일단 진공 상태의 우주를 벗어나야 한다.

케리건은 베히모스를 조종하여 전투에서 승리하였지만 괴수가 부상당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었다. 괴수의 지친 눈동자를 바라보며 그녀는 괴수가 쉴만한 장소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곧장 앞에 있는 행성이 눈에 들어왔다. 행성의 대기는 대부분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져 있었고 탄소 기반의 생명체들이 살고 있었다. 그 생명체들을 먹어 치워 베히모스와 수 천의 저그들은 회복하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케리건은 목적지로 베히모스를 이끌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너무나도 노령한 존재에게 시간이란 큰 의미가 없다. 베히모스는 행성의 중력 영향권에 도달했다. 대기를 뒤덮은 두꺼운 구름이 지면을 가렸다. 구름을 뚫고 하강한 베히모스는 행성을 살펴보았다. 비슷한 행성을 본 적이 있다. 산과 나무, 그리고 녹색이 가득한 땅. 한때 이런 행성에서 쉰 적이 있다.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을 것이다. 포유류 생물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생물체. 그래! 베히모스는 아래에서 생물체의 열기가 모여있는 것을 느꼈다. 본능적으로 괴수는 영양분을 향해 하강하기 시작했다.

* * *

브라흐는 밤까마귀 정찰대가 전송한 영상을 리에게 보냈다. 둘은 첫 번째 조우 전쟁 때 참전했고 어떤 종류의 저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저글링. 뮤탈리스크. 히드라리스크… 하지만 그중에는 무언가 처음 보는 것이 있었다.

"소령님, 저건 도대체 뭡니까?"

중앙 콘솔을 바라보던 리는 브라흐 곁에 서서 잡음이 가득한 영상을 바라보았다. 브라흐는 땅딸막하고 다리가 여러 개 있는 저그를 가리켰다. 놈들은 끈적한 점막 위를 기어 다니고 있었다. 두꺼운 갑피에는 가시가 솟아나 있어서 공중에서는 생김새를 정확히 알아보기 힘들었다.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된 움직임으로 크라쿨브 기지 방어벽에서 2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의 인공위성 안테나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리는 고개를 흔들었다. "처음 보는 개체입니다. 하지만 저그는 빠르게 진화하니 그렇게 놀랄 일도 없죠. 새로운 종이거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놈일지도 모릅니다. 더 향상된—"

저그가 안테나에서 3 백미터 가량 되는 거리에 도달하자 앞 열의 저그가 일어서더니 입에서 녹색의 산성 타액을 안테나를 향해 뱉기 시작했다. 앞 열이 공격을 멈추자 뒷 열이 일제히 일어나서 타액을 내뿜었다. 신소재 강철 소재의 안테나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 내리는 데는 30 초도 걸리지 않았다.

"LRC-4 가 방금 끊겼습니다." 대원 하나가 소리쳤다.

리가 이를 꽉 물며 내뱉듯이 말했다. "바퀴."

"바퀴라고? 저거보다 좀… 작지 않아?"

"성장했나 봅니다. 빌어먹을." 리는 곧장 중앙 콘솔로 달려가 백 번도 더 본 기지의 방어 시스템 현황을 둘러보았다. "아직 방벽의 내구도는 100 퍼센트입니다. 돌파 당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당하지는 않았군요. 하지만 한두 시간이면 저 놈들이 방어선을 뚫을 겁니다."

"한 시간과 두 시간은 엄청난 차이지. 그 동안 대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니까."

리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미동도 하지 않는다. 망설이고 있다. 그녀가 이렇게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결혼식 이후로 처음 본다. 브라흐는 병영에서 쓰던 보관함을 가지고 오자고 리에게 말했다. 비록 작고 비중 없는 기지였지만 해병으로서 명예롭게 전역했다는 사실을 간직하기 위해. 하지만 보관함에는 단지 메달과 트로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장에서 얻은 여러 가지 기념품들은 그들이 겪었던 전쟁을 회상하게 만드는 추억거리였다. 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브라흐는 알고 있었다. 무언가 해야 한다.

"편대를 구성해서 시간을 좀 벌어보겠습니다." 브라흐는 경례를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소령님."

중앙 콘솔을 살펴보던 리가 화들짝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안됩니다! 저 놈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잘 알잖습니까? 게다가 예전보다 몸집도 훨씬 커졌습니다. 놈들이 공중 공격을 할 수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그럼 애초에 왜 밤까마귀들은 내버려뒀지? 중장갑이 너무 무거워서 고개를 들지도 못 할 거야. 밴시 여섯 대랑 밤까마귀가 보내주는 좌표만 있으면 돼. 크게 한 방 먹여주지."

"밴시를 가장 최근에 조종한 게 언제죠? 반 년? 일 년? 그 고철만큼이나 당신 실력도 녹슬어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타당한 이유 없이는 대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방벽 너머로 가지 못합니다… 대위, 당신도 포함해서요. 알겠습니까?"

브라흐는 리가 심각한 이야기를 할 때를 알고 있다. 자신을 대위, 혹은 정식 이름인 브라흐얀이라고 부를 때다. 브라흐는 그럴 때가 싫었다. 마치 자신을 아이처럼 취급하니까. 그녀는 브라흐의 아내이자 상관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녀가 만사를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그녀는 브라흐와 대여섯 명의 밴시 조종사들이 매달 달이 뜨지 않는 날에 연습 비행을 나간다는 것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알겠습니다, 소령님." 그 말을 남기고 브라흐는 중앙 지휘부를 나갔다.

* * *

"어이 일리아나. 무슨 일이야?" 대니온 코터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녀에게 말했다.

"별일 없어." 자동문이 뒤에서 닫혔다. "나, 너, 새대가리 아홉 명, 인공 생태계 열한 개, 그리고 무수히 많은 무료함. 딱 내가 원하던 거야."

그 말이 신호가 된듯이 대니온의 콘솔 전체에 불이 들어왔다. 그리고 잡음이 가득한 수신음이 도착했다.

"여기는 레이놀드, 기지 응답하라. 혹시 이 구역에 태풍이 지나갈 예정이야?"

댄은 채널을 열고 근무 편성표를 확인했다. "여기는 기지. 현재 네가 있는 장소는 제 3 생태관 같은데. 산 아래에 있는 민달팽이랑 수액 지구 말이야. 무슨 일이지?"

"마치 누가 불을 끈 것 같은 느낌이야. 기지에서 나오기 전에 일기예보를 확인하긴 했는데 태풍이나 악천후 소식은 없었어. 다시 한 번 봐줄래?"

"물론. 잠시만 기다려." 댄은 오늘의 일기예보와 실시간 날씨 변화를 화면에 띄웠다. "여기대로라면 거기는 화창하고 건조해야 되는데. 산 때문에 그늘이 진 거 아냐? 오후 2 시면 슬슬 해가 지잖아. 만약 태양이 반대쪽으로 가면…"

"난 일주일에 두 번 여기 온다고, 제기랄. 언제쯤 어두워지는지는 알아."

"일리아나가 대니온의 어깨에 기대고 말했다. "레이놀드, 나 조레스야. 확실히 구름이 맞아?"

"내가 어떻게 알아? 민달팽이 지구에 있어서 지붕의 스크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거기다가 빠르게 어두워지는 게 느껴진다고. 콘솔 구역으로 가서 손전등이라도 가져와야 지지직지지지지직지지직."

대지가 진동했다.

"방금 그거 뭐지?" 댄은 통신 장치를 이리저리 조정하여 연결을 복구하려 했다.

일리아나는 땅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곧 그것이 그녀의 엉덩이에서 진동하는 경보 장치인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확인하고는 일리아나는 짧게 내뱉었다. "제기랄."

과학자 중 한 명인 헤스켄이 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숨을 헉헉대며 그가 말했다. "지진이에요? 저는 정말 지진이 싫다고요. 제발 이 행성이 안전하다고 말해주세요."

일리아나는 그를 밀어내며 출입구로 향했다. “지진인지는 불확실해요. 하지만 그것이 뭐든 제 3 생태계의 안전 시설을 망가뜨렸다고 방금 경보가 왔어요. 비상 안전망이 가동되었군요. 코터, 레이놀드한테 계속 연결 시도해.”

모니터에서 수많은 데이터와 보고가 처리되고 있었다. 댄은 스크린들을 넘나들며 모든 것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 했다. 아니면 최소한 원인이라도. “너는 어쩌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일리아나는 대답했다. “그쪽으로 가려고.”

* * *

밴시 여섯 대가 보랏빛 하늘을 향해 굉음을 지르며 날아올라 저그에게 반동 로켓포를 쏟아부었다. 브라흐가 편대를 지휘하며 계곡 위를 지나자 아래에서 불꽃의 향연이 일어났다.

“첫 번째 공격은 성공적입니다, 소령님.” 브라흐가 헤드셋을 통해 말했다. “밴시 편대, 2 차 공격을 개시한다.”

크라쿨브 기지에서 리는 소리 없이 씩씩대며 주먹을 굳게 쥐고 있었다.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브라흐가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밴시를 내보낼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리는 매달마다 브라흐가 계획한 연습 비행에 대해 훤히 알고 있었으니까. 물론 그는 그 사실을 리가 꿈에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을 테지만.

만약 이 전투에서 살아남는다면, 브라흐를 징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 살아남는다면. 생사가 걸린 일이라면 군법 회의 따위, 해병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래서 그녀는 브라흐를 보내주었고, 중앙 지휘부 대원들에게는 최대한의 전술적 지원을 명령했다. 이제 그들이 출격한 이상,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브라흐는 편대를 추스르고 두 번째 폭격을 준비했다. 밴시들은 저공 비행을 하며 목표에 다가갔다. 첫 번째 공격 때는 기지에서부터 은폐장을 가동하고 낮게 뜬 태양을 등진 상태로 마지막 순간에 폭격을 감행했다. 다행이 저그가 감시군주를 대동하게 전에 공격을 마쳤다. 하지만 이 고철 밴시가 언제까지 은폐를 지속할 에너지가 남아있을지는 미지수다. 그것만은 리의 말이 맞았다.

이제 저그는 편대가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브라흐는 저그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최대한 몰아치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다.

"사격 개시!"

브라흐는 바퀴의 무리 위로 비행했다. 밴시의 로켓이 폭발하면서 조각난 껍질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로켓이 타격한 곳에는 큼지막한 구멍이 듬성듬성 생겨나 있었다. 계곡에 폭격이 이어지자 구멍들도 점차 많아졌다—

뭔가 이상하다. 갑피 조각과 저그 내장이 난자해있을 줄 알았지만, 바퀴가 있던 곳들에는 그저 구멍들만 있었을 뿐이었다. 마치 바퀴들이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아니면, 땅속으로 사라졌을 수도.

브라흐는 바퀴들이 땅속으로 잠복하는 것을 보았다. 먼지투성이에 쩍쩍 갈라진 지면이 놈들을 집어삼키고는 보호해주고 있었다. 몇몇은 부상당한 상태로, 나머지는 공격을 받기 전에 미리 땅 밑에 몸을 숨겼다. 이 독특한 저그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지대공 미사일 이상의 무기가 필요하리라.

"바퀴들은 내버려둬! 목표를—"

브라흐가 말을 마치기 전에 헤드셋에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고 충격파가 그의 밴시를 뒤흔들었다. 조종간을 힘껏 당겨 균형을 잡고 위로 오른 브라흐는 주위를 둘러보아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그리고는 다른 밴시가 화염에 뒤덮인 채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다. 폭발하는 밴시의 잔해 사이로 뮤탈리스크 편대가 눈에 들어왔다.

"세시 방향 위쪽입니다, 대위님!"

편대 부관의 외침이 브라흐의 정신을 바로잡았다. 정면을 바라보자 뮤탈리스크 두 마리가 위에서 그를 향해 맹렬하게 하강하고 있었다.

* * *

일리아나는 냉각복을 착용하고 상태를 확인했다. 모두 양호. 가르잭스의 대기는 호흡이 가능하지만 질소가 가득하다. 그래서 그녀는 만일을 대비하여 여분의 산소통을 부착했다. 그리고 부츠를 여미고 냉각복에 잘 이어져있는지 확인했다. 열대 우림 속으로 첫 순찰을 나갔을 때 부츠를

제대로 봉하지 않아 잔타르 민달팽이가 기어들어올 뻔 했다. 그녀는 연구실 모니터에서 잔타르 민달팽이가 얼마나 독한 산성 점액을 내뿜는지 보았다. 까딱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했으리라. 그 후로 그녀는 언제나 부츠를 확인했다.

무기. 아마 필요할 것이다. 대부분의 토착 생물은 온순하거나 테란을 두려워하지만 언제나 그녀는 무기를 들고 나갔다. 일리아나는 친숙한 P220 소총을 꺼내서 간단한 점검을 했다. 소총은 그녀의 나이만큼이나 오래되었고, 대부분의 병사들은 더 강력한 신형 무기를 사용한다. 하지만 P220 은 절대 고장이 나지 않고 불발되지 않는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총이라도 제대로 쓸 수 없으면 아무런 쓸모도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일리아나는 얼굴 위로 차양막을 덮어 대낮의 태양을 피했다. 제 3 생태계는 산의 북쪽에 있지만, 문제가 심각하다면 다른 초소들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으리라. 그리고 그곳에는 햇빛이 뜨겁게 내리쬘 것이니 차양막이 더욱 필요했다. 가르잭스는 자전축이 비정상적으로 기울어져 있어 이맘때에는 태양이 지는 데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대니온이 준비실에 걸어들어왔다. “레이놀드와 연락이 됐어. 어느 정도는.”

“뜸들이지 마, 댄. 안 어울리니까.”

그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일리아나는 댄의 얼굴에 있는 표정이 실망이 아닌 두려움 인 것을 알아챘다.

"내 말은… 저 세상으로 간 거 같아. 생태계의 통신 장치가 아직 복구되지 않았지만, 레이놀드의 생체 신호 모니터에서 약하지만 신호를 수신 받았어." 댄이 숨을 내쉬었다.

일리아나가 댄을 방 밖으로 떠밀었다. "신호가 약하다면서. 잘못 온 거겠지. 계속 시도해봐. 알았지?"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리아나. 구조선을 요청하자. 행성 도약함이 오기까지 네 시간이 걸릴 거야…"

중앙 통신기지로 그를 밀어내며 일리아나가 말했다. "괜찮아, 댄. 나 하나쯤은 건사할 수 있다니까."

* * *

밴시가 술취한 주정뱅이처럼 온 사방을 비틀거렸고, 얼마 뒤 그 자리에서는 쐐기 벌레들이 폭발했다. 하늘에서 스무 마리의 뮤탈리스크가 밴시를 뒤쫓았다. 놈들은 크라쿨브 기지로 귀환하기 위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밴시 뒤에 몇 번이고 쐐기를 내뱉었다. 전투기의 왼쪽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아올랐다.

중앙 지휘부에서 리 트라이커는 불안한 표정으로 스캐너를 바라보았다. 뮤탈리스크들이 물리적 피해를 주기 전에 밴시들이 크라쿨브 기지의 방어망에 진입할 수 있다고 대원들이

예상했다. 하지만 급박히 산출한 예상이었고, 터보 엔진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가능성은 더더욱 의문스러웠다.

"10 초 후에 방어망에 도달합니다, 소령님."

밴시는 연속 횡전을 하며 오른쪽을 노리는 뮤탈리스크들의 집중 공격을 피했다. 쐐기 벌레 한 무리가 한꺼번에 폭발하고 폭죽처럼 지상을 향해 불꽃을 내며 떨어졌다.

"5 초, 4, 3, 2…"

"전 포대 일제히 발사!" 리가 소리쳤다.

중화기를 다루는 해병들은 그녀의 명령을 똑똑히 들었다. 기지의 방벽에서 300 미터 가량 떨어진 하늘에 대공포가 무수히 작렬했다. 뮤탈리스크 살점과 날개가 갈기갈기 찢긴 채 하늘에서 조각나 떨어졌다. 대공포 탄막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밴시들은 낮게 비행했다.

"맙소사, 어이 당신들,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 퍼붓지 그래?"

브라흐의 목소리가 둔탁한 폭발음과 함께 잡음 사이로 들려왔다. 리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그녀는 그런 자신이 한심스러웠다. 그가 데리고 나간 밴시 조종사 중 다섯이 뮤탈리스크나 곧이어 도착한 히드라리스크 지원군에게 전사했다. 하지만 이렇게나 급박한 상황이 계속되자 편애고 뭐고 생각나지 않았다. 리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남편이 곁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착지 후에 즉시 중앙 지휘부로 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대위."

5 분 뒤에 브라흐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CMC 전투복을 입고 등장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꽤 많이 처리했습니다, 소령님. 아마 두세 시간 정도는 벌었을 겁니다. 놈들이 진형을 정비하고 공세로 다시 전환하려면 말이죠."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브라흐가 멈칫 했다. "그건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소령님. 대원들은 임무를 이행했습니다. 우리 모두들처럼요."

리가 한숨을 내쉬었다. "획득한 정보는 있습니까? 저들이 방어선에 도달하면 어찌 행동할지?"

브라흐가 근심 어린 표정을 지었다. "불확실합니다. 마치 모래인양 지면 밑으로 잠복했으니까요."

"기지 밖으로 걸어나가 보셨습니까? 삽 한 자루만 주시면 저도 이 위성 밑으로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브라흐는 그녀의 비아냥거림을 무시했다. 아직 잘 모르나보다. "그리고 그 밑에 숨어있으면서 5 초 만에 부러진 다리를 회복할 수 있으십니까?"

리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첫 폭격 때 반은 처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보니 대부분의 녀석들이 지면 밑으로 잠복했습니다… 그리고 뮤탈리스크 급습을 당한 이후에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바퀴들이 폭격 전의 숫자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상처 하나 없이 나왔습니다. 마치 내가 솜방망이로 후려갈겼나 싶은 착각이 들 정도로요."

리는 심각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 * *

착지는 순탄하지 않았다.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내부의 저그가 자양물이 없이도 버틸만한 시간 내로. 정찰도 해야 한다.

케리건은 저그를 베히모스 밖으로 내보냈다. 행성은 뜨겁고 습하며 산지가 많고 위험천만했다. 하지만 이런 제한 사항들은 저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등뼈가 불쑥 솟아난 저그, 날개 달린 저그가 열대 우림 속으로 들어가며 동식물을 쓸어 담기 시작했다.

뮤탈리스크들은 숲 위를 날아다니며 정찰을 했다. 그들을 통해 케리건은 숲 주위에 구조물이 있는 것을 보았다. 흰 색의 돔 두 채. 그리고 철로 만들어진 작은 건물들. 테란인가, 프로토스인가? 상관 없다. 그녀의 관심은 구조물이 군사적인지 않은지이다. 그리고 후자라고 결론지었다. 물론, 생물체가 있다면 저그가 포식할 수 있으리라. 그녀는 단 하나의 명령을 전달했다.

공격.

히드라리스크들이 앞장서서 돔의 스크린을 박살냈다. 후덥지근한 공기와 증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리고 테란들의 단순한 경보 시스템이 여러 가지 색깔을 띠며 울렸다. 돔 안쪽의 지형은 바깥과 비슷했으나 더 무더웠다. 삼림 속에는 인위적으로 만든 단단한 길이 보였다.

히드라리스크는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갔다.

소리. 테란의 비명. 케리건은 히드라리스크들을 앞으로 보냈다.

작은 민달팽이 같은 생물들이 보였다. 저그의 지식에 없던 그 생물은 나무와 식물 위에서 몇몇 저그에게 떨어졌다. 민달팽이에 맞닿은 저그들에게서 고통이 전해졌지만 케리건의 주의는 다른 곳에 몰려있었다.

철문 앞에는 한 명의 테란이 있었다. 공포와 절박함의 냄새를 맡은 히드라리스크들은 마치 독한 술인 양 그것에 흠뻑 취했다. 그리고 마셨다. 음미했다. 그리고 술은 바닥났다. 테란에게서는 이제 죽음의 악취만이 풍길 뿐이었다.

이제 저글링들이 돔 안으로 들어와 동족을 따라 문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저글링들이 부주의하게 나무에 부딪히면서 더 많은 민달팽이들이 쏟아져 내려왔다. 더 많은 저그들이 고통에 찬 의식을 전달했다. 몇몇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케리건은 저그에게 멈출 것을 명령하고 너무나도 작은 생물이 어찌 강대한 저그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저글링들을 통해 민달팽이를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나약한 생물들은 저그의 칼날과도 같은 발톱에 스치자 곧바로 죽었다. 케리건은 문 주위에 있는 히드라리스크들에게 주의를 돌렸다. 그리고 여태껏 알아채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

더 많은 민달팽이들이 문을 뒤덮고 있었고, 지면에는 구멍이 뚫려있다. 몇몇은 얕은 구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죽은 테란은 손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다. 발치에 있는 용기에는 민달팽이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

민달팽이들은 저그 살갗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철도 부식시킬 수 있었다. 유용하게 쓰일지도 모르겠다.

케리건은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리고 저글링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았다.저그가 무심결에 죽인 민달팽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상처만 입고 살아 남은 놈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아무런 피해도 받지 않은 듯 멀쩡하게.

정말 유용하겠군.

* * *

"소령님, 구축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60 분 후 도착 예정이랍니다."

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40 분 전에 저그는 크라쿨브 기지 전체를 에워쌌다. 이제 놈들은 있는 힘껏 방벽을 허물려고 하고 있었다. 지상에서는 바퀴들이 산성 타액을 내뱉었고,

공중에서는 뮤탈리스크들이 날아들어와 산발적으로 쐐기를 퍼부었다. 아직 벽이 버티고는 있고, 브라흐의 지휘 아래 대공포가 뮤탈리스크 무리들을 쫓아내고 있지만 리는 알고 있었다. 저그는 기지를 함락시킬 것이다. 다만, '언제'인지가 문제일 뿐.

60 분. 대포와 방벽이 그 동안 버틴다면 나머지 해병들은 모두 대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사망자는 30 퍼센트보다 낮으리라. 첫 번째 공격 이후에 자신이 예상한 수치보다 훨씬 양호하다.

뮤탈리스크 부대가 잠시 동안 공격을 멈추었다. 리는 방벽 외곽에 설치된 영상망에 주의를 돌려 중앙 콘솔에 띄웠다. 저그의 끊임없는 공격은 방벽 시스템의 일부를 이미 망가뜨렸고 영상에는 잡음과 흐릿함이 가득했다. 리는 그 사이로 움직임과 모양을 포착하려 노력했다. 저글링들이 있다. 히드라리스크도. 바퀴도…

그러다가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다. 아니, 본 것 같았다. 심장이 덜컹 내려앉은 기분이다. 30 초 전으로 영상을 돌려 그녀는 다시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시 보았다. 실시간으로 영상을 전환했다. 또 다시 보았다. 확실하다.

숨을 들이마셔 그녀는 브라흐에게 자신이 본 것을 말해주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 전에 헤드셋에서 대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리, 지면이 이상해! 잘 모르겠지만... 크라쿨브에서는 지각 활동이 일어나지 않지?"

"지진이 아닙니다, 브라흐. 영상에서 방금 확인했습니다."

리는 곧바로 콘솔에 있는 적색 경보 신호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는 경보가 새벽녘부터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헤드셋에 손을 가져다 댄 그녀는 전 병력에게 알렸다.

"전 부대원, 주목! 바퀴들이 방벽 밑으로 굴을 파고 있다. 반복한다, 바퀴들은 잠복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땅 밑으로 이동할 수 있다! 포를 맡지 않은 모든 대원은 연병장으로 즉시 집합한다!"

내부 영상을 통해 해병들이 기지 곳곳에서 연병장으로 신속하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리는 브라흐가 계곡에서 보았던 것이 떠올랐다.

"화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들만 동원하고 확실하게 사살하라. 반복한다, 적 병력 전체를 백 퍼센트 사살하라! 저 망할 놈들은 회복력이 엄청나다, 그러니 부상을 입힌 걸로 만족하지 마라! 잠복을 시도하면 굴 안으로 수류탄을 던져 넣어라!"

해병들이 연병장으로 몰려들었다. C-14 "관통" 돌격 소총을 장전하고 준비 태세를 마쳤다. 첫 번째 바퀴가 지면을 뚫고 방벽 안에 나타났다. 무수한 총격으로 기지가 환하게 빛났다. 바퀴들은 산성 타액을 내뱉으며 강력한 키틴질 다리로 한 해병을 둘로 갈라 놓았다. 또 한 명의 해병은 발 밑에서 솟아오른 바퀴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 리는 바퀴가 그를 땅 밑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았다. 해병은 안간힘을 쓰며 끌려들어가지 않으려 했지만 곧 땅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구멍에서 흙먼지와 조각난 저그 갑피가 뿜어져 나올 때 그녀는 가슴 아픈 만족감을 느꼈다. 끌려들어간 해병이 최후의 수단으로 수류탄을 터뜨린 것이다.

10 분 후, 상황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퀴들은 거대했고 매우 단단했다. 해병들의 돌격 소총이 입히는 피해보다 회복력이 더 빠르기도 했다. 다섯 마리의 바퀴가 쓰러졌지만 해병들은 서른 명,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숫자가 전사하고 있었다. 리의 대원들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바퀴들이 말 그래도 땅속에서 솟아나왔기에 은엄폐할 곳이 없었다.

그때 바퀴들이 갑자기 뒤돌아 섰다.

리는 놈들이 퇴각하려고 방벽을 향해 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녀는 바퀴들이 기지 안에 침입하는 것은 단지 서막에 지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았다. 방벽의 외부는 매우 견고하기도 했고, 자동 감시포가 이를 엄호한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감시포도 없고, 부벽이나 지지대도 없다. 그냥 두꺼운 신소재 강철만으로 덮여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바퀴들이 산성 액으로 방벽 안쪽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바퀴 세 마리가 한 조가 되어 각각 한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해병들의 관통 돌격 소총에서는 계속해서 불이 뿜어져 나왔지만 다른 바퀴들이 이를 감싸주었다. 마치 방벽을 공격하는 동족들을 보호하는 살아있는 방패 같았다.

뮤탈리스크들이 잠시 물러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리라. 바퀴가 방어선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저그였어도 똑같은 명령을 내렸을 테니까. 이제 그녀가 사용할만한 무기는 하나밖에 없었다. 쉽지 않은 선택이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그녀는 명령을 내렸다.

"브라흐, 대공포의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방벽 안쪽에 있는 바퀴들에게 포화를 집중하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소령님?"

"놈들을 제압하라고요, 빌어먹을! 방벽이 뚫리기 전에 놈들을 처치할 화력을 가진 무기는 그것뿐입니다!"

"아직 대원들이 밑에 있다고요!"

"알고 있습니다!"

브라흐는 통신을 끊었다.

리는 기다렸다. 자신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나약하게 느껴졌다. 바퀴들이 산성 액으로 기지의 방벽을 분자 단위로 분해하고 있다. 4D 구역이 급격하게 약화되었다..

귀가 멎을 듯한 대공포의 탄막이 연병장에 있는 바퀴들을 난자했다. 충격에 휩쓸린 세 명의 해병은 공중을 가르며 나가떨어졌다.

"전원 대피하라! 반복한다, 거리를 확보하고 교전을 피해!" 브라흐의 목소리가 통신망을 통해 뚜렷하고 크게 울려 퍼졌다. 대공포의 포환은 계속해서 연병장을 두들겨댔다.

리는 방벽의 상태를 살펴보며 대원들의 보고를 하나하나 들었다.

"8C 구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3B 현재 80 퍼센트!"

"4D 완파되었습니다!"

"수신 완료! 해당 지역을 속히 처리하겠다!"

연병장에 더 많은 포격이 가해졌다.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바퀴들에게 포화가 집중되었다. 이미 방벽이 뚫린 구역에서는 연병장이 아닌 뚫린 구멍에 포격을 가라고 브라흐가 명령했다. 구멍 사이로 쏟아져 나오는 저그가 연달아서 분쇄되었다.

이제 뮤탈리스크들이 다시 합세했다. 대공포가 지상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공중에서 등장한 뮤탈리스크들은 해병들을 향해 비바람이 몰아치듯 쐐기 벌레를 쏟아냈다.

리는 시계를 보았다. 40 분.

* * *

일리아나와 댄은 통신소에 함께 들어왔다. 댄은 레이놀드의 생체 신호 모니터의 신호를 증폭하려 노력했다. 기기들을 조정하고 버튼을 누르며 그는 숨을 가쁘게 내쉬었다.

일리아나는 비상용 차량 콘솔을 띄워 정글 지프 한 대를 예열시켰다. 사실 개량형 모히칸이었지만 생물형태학을 총괄하는 수석 프로젝트 담당자인 칼린스 박사는 "정글 지프"라고 불렀다. 과학자들이 그걸 웃긴 이름이라 생각하는지, 아니면 칼린스에게 알랑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이름은 그렇게 확정되었다.

댄이 콘솔을 확인했다. "무슨 소리지?"

뒤돌아선 일리아나는 무슨 소리인지 확인하려다 자신의 냉각복 주머니에서 나는 소리임을 알아챘다. 그녀의 경보기가 또 울리고 있었다. “이런, 안 돼…” 그녀는 상황을 파악했다. “제 6 생태계가 뚫렸어.”

“3 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서쪽에 있는. 거기에 혹시 누가…?”

“아냐. 3 구역에만 오늘 사람이 있었어. 다행이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칼린스 박사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코터, 신호를 어떻게 한 겐가? 제 6 생태계의 모니터가 모두 단절되었네!”

칼린스도 다른 과학자들처럼 성격이 급한 편이었다. 일리아나는 대니온을 가로막아 말싸움을 할 여지를 미리 없앴다. “우리 탓이 아닙니다, 박사님. 6 구역이 자체에서 통신이 끊겼습니다. 3 구역처럼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에서 얼쩡대고 있는 건가? 어서 나가서 고치도록 하게!”

“지금 그러려고 합니다. 제발 좀 진정하—” 아직 그녀의 손에 있는 경보기가 또 울렸다. “이제 1 구역도 두절되었군요.”

“뭐라고?!”

일리아나는 칼린스를 무시하고 초소 지도를 띄웠다. 가상 생태계들은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고, 각각은 중앙에 있는 기지로부터 10 에서 20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있다. 도달하기에 적당한

거리이면서도 여러 장소의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넓게, 그리고 멀리 퍼져있다. 3 구역은 기지로부터 북서쪽 방향에 있고 6 구역은 3 구역의 서쪽이었다. 1 구역은 6 의 남서쪽에 있다…

"댄, 이걸 봐. 네가 맞았어. 마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 같아. 반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일리아나는 대니온의 표정에서 자신이 틀리기를 바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누구의 명령? 생태계들이 순차적으로 연결이 끊길 이유가 없어. 자율적 병행 방식이잖아. 오직 우리에게서만 명령을 받는다고."

일리아나는 원형의 순서를 보고 레이놀드의 말을 되새겼다. "마치 누가 불을 끈 것 같은 느낌."

"경보를 발령해, 댄. 행성 도약함 연락하고. 칼린스 박사님, 연구원들을 호출하고 대피 준비를 서두르세요.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칼린스는 헛나오는 말을 내뱉으며 항의했다. "이 무슨—? 하지만… 당신이 무슨 권리로—" 하지만 일리아나는 그를 무시하고 방 밖으로 내쫓았다. 그녀는 기지의 구성원들 중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유사시에 한해 경비원들은 비전투 인원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박사 따위 엿먹으라 그래.

대니온는 콘솔 위로 손가락을 바삐 움직였다. "일리아나… 밖으로 가지마. 제발."

슬픈 웃음을 띠며 그녀가 말했다. “댄… 나도 이곳에서 기다리고 싶어. 하지만 그럴 수 없어. 내 일이니까.” 내면에서 공포와 트라우마의 기억이 스며 나와도 일리아나 조레스는 여전히 군인이었다. 한 명의 해병. 그리고 그녀는 이곳에 잠자코 있으면서… 있으면서…

그녀는 그 단어를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다.

* * *

“크라쿨브 기지, 여기는 해병 구축함 승리호다. 행성을 포착했다. 응답하라.”

예상보다 5 분 빠르다. 리는 헤드셋을 외부 채널로 전환했다.

“*승리호*, 여긴 크라쿨브 기지입니다. 전 리 트라이커 소령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긴 정말 난장판입니다. 100 명에서 150 명 가량의 생존자가 있고 즉각적인 대피가 필요합니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공간이 별로 없어 보이는군, 소령. 구축함이 격납고에 착지할 수 있는가?”

리가 낮은 소리로 욕지거리를 내뱉었다. 크라쿨브 기지는 *승리호*만한 크기의 함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아무도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불가능합니다. 방벽 바깥에 착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 전 방향 5 백 미터마다 저그가 포진해있다.”

“우리 의료선들은 모두 확보했습니까?”

"그렇다. 모두 확보했고 대기 중이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현재 이곳에는 한 대의 의료선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 대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지 위에 자리를 잡고 공대지 포격으로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통신이 잠시 동안 멈췄다. 아마 함대의 지휘관이 그녀의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리라. 하지만 그나마 가능한 방법이 그것뿐이다. *승리호* 같은 기본적인 구축함도 저그에게 가공할 피해를 줄 정도의 무장은 되어 있을 테고, 어느 정도의 공격은 견뎌낼 것이다.

다시 통신이 이어졌다. *"알았다, 소령. 믿어보겠다. 3 분 후에 포격 위치에 도착한다. 그때 의료선을 보내겠다."*

다음 3 분 동안 리는 해병들을 위치로 보냈다. 부상자들은 기지에 남아있는 의료선으로 후송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건물 안으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중앙 지휘부의 나머지 대원들을 의료선 격납고로 보냈다. 대원들은 반발했지만, 브라흐마저 꼼짝없게 만든 그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자 이내 조용해졌다. 격납고로 줄지어 나가던 대원들은… 리의 남편과 마주쳤다. 브라흐는 대원들을 비집고 지휘부로 들어왔다.

"리! 어서 와, 빨리 가야 해!"

중앙 콘솔에 초록 불이 들어왔다. 의료선 조종사가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리는 격납고 문을 개방했다. "먼저 가세요, 브라흐. 저는 마지막 대피가 끝날 때까지 여기에 있겠습니다."

"지금 이게 마지막 대피야! 구축함이 포격 위치에 머지않아 도달해. 이 기지는 함선이 아니라고, 넌 함선의 지휘관이 아니야! 기지와 함께 사라질 생각은 하지 말라고!"

"그럴 생각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그에게 우리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소거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 자폭용 핵무기를 가동시키고 어서 가자고!"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타이머를 너무 짧게 설정하면 승리호와 거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이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너무 길게 설정하면 핵무기가 가동되기 전에 저그가 정보를 이미 확보할 테고요."

"그럼 어쩌자는 거야?"

리가 콘솔을 내려다보았다. 해병들이 물러나는 동안 저그는 중앙 구조물의 외곽까지 접근해왔다. 바퀴들이면 입구를 돌파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중앙 지휘부까지도. 브라흐에게 돌아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보관함 가져오지 말자고 다투었을 때를 기억해요?"

"기억하지…"

발꿈치를 들어올린 그녀는 브라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제 보니, 당신 꽤 선견지명이 있군요. 내 계획을 들어 봐요…"

* * *

정글 지프가 비포장 지면을 덜컹거리며 나아갔다. 일리아나는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최대한의 속력을 내며 열대 우림을 질주했다. 덩굴들이 차체를 쉴새 없이 두들겼다. 곤충들과 작은 생물들이 지프의 흔적 위로 뿔뿔이 흩어졌다.

산의 그림자는 태양빛을 황혼녘의 색으로 바꾸어놓았다. 하지만 일리아나는 가까스로 생태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산 위로 100 미터 정도만 더 가면 된다. 여기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돔 하나에서 증기가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만, 이곳은 습한 지역이다. 열대 우림의 열기 때문에 돌에서도 가끔 증기가 뿜어져 나온다.

일리아나는 흙으로 된 길로 다시 정글 지프를 몰았다. 더 이상 지름길을 고집할 이유도 없었고, 모히칸으로 가르잭스의 산지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니까.

생태계에 도착한 그녀는 지프를 주차했다. 확실히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구역은 완전히 어두웠고 전력이나 생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돔은 깨져 있었다. 출입구는 뜯겨져 나가 있었고, 안에서 일리아나가 본 것은 황폐함뿐이었다.

중앙 생태계는 마치 야생 동물들이 들이닥친 것처럼 파괴되어 있었다. 장비, 콘솔, 비품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고, 제멋대로 얽힌 전선에서는 간헐적으로 불꽃이 튀었다. 바닥에 있는 블록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마치 단단한 발굽을 가진 들소 무리가 난동을 피운

것처럼. 이 행성에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생물들이 있는 것일까? 하지만 시설을 이렇게나 철저하게 부숴놓을 거대한 야수를 확인하지 못했을 리가 없다.

그녀는 통신 장치를 활성화시켰다. "코터, 여기는 조레스. 생태계에 와 있어. 상태가 최악이야. 멀쩡한 게 거의 없어."

댄의 답변에는 잡음이 가득했다. *"겨우 들려, 조레스... 괜찮아? 소리가... 망할. 통신이 너무 불안정해... 거기 있...거야?"*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구원 요청 보냈다고 제발 말해줘."

"물론... 네가 떠나기 전에... 90 분... 와야 하는데."

"괜찮아. 잘 들려. 잡음이 좀 있긴 하지만 신호는 돌아와 있어."

"아냐, 멍청아... 네가 돌아와야 한다고! 구역 네 개가 더... 일어나고... 여기서 탈출해야 해!"

구역 네 군데가 또 이상이 생겼다.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하나씩 연결이 끊기고 있겠지. 중앙 기지를 에워싸듯이 정체불명의 무엇이 움직이고 있다.

일리아나는 중앙 생태계의 대기 관리기를 찾으러 나섰다. 모든 구역에 하나씩 있는 대기 관리기는 생태계의 밀도를 관리한다. 구역에 이상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일리아나는 숨을 참으며 보안 코드를 입력했다.

문은 쇳소리를 내며 열렸다. 최소한 이건 제대로 작동하고 있구나. 손잡이는 뜨거웠다. 처음에는 관리 장치 문제라고 생각했으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 지를 자각하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제 3 생태계는 두 종류의 생물체를 연구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다. 하나는 나무의 일종인데, 그 나무의 덩굴에서 나오는 수액은 신소재 강철을 접착제처럼 서로 붙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를 신소재 강철의 강화 소재로 연구 하고 있었다. 문제는 이 수액이 가연성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화재를 일으키는 데 총격 한 방이면 충분하다. 혹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처럼, 이 생태계에 서식하는 두 번째 생물체의 화학 반응으로도 가능하다.

잔타르 민달팽이는 단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지만 위협을 당하면 매우 강한 산성의 점액을 분비한다. 신소재 강철마저 녹여버리고 나무의 수액에 불을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원래 이 민달팽이와 나무들은 대륙의 정 반대쪽에 서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과 운이 서로 맞물려 가끔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발생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이 화학생물학자 레이놀드를 전율케 했다. 그는 가르잭스의 열대폭풍만 아니었으면 행성이 깡그리 타버렸을 것이라 한다. 하지만 인공 생태계에서 과학자들은 이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민달팽이들을 채집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비록 지능적이지는 않지만, 멸종 당하지 않기 위한 생존 본능은 지니고 있었다. 잔타르 민달팽이 무리가 열대 우림의 땅속으로 파고들어간 것이 그 증거였다.

레이놀드와 그의 동기들은 그렇게나 강한 산성을 어떻게 체내에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려 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민달팽이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대사 과정, 정확히 말하면 엄청난 회복력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헤스켄은 한때 일리아나에게 반으로 잘린 민달팽이가 서로 엉겨붙어 다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줬었다. 전체 과정이 1 분도 걸리지 않아서 그녀는 헤스켄에게 몇 배속으로 재생한 것이냐고 물었다. 하지만 헤스켄은 껄걸 웃으며 실시간이라고 대답했다. 고속 재생이 필요 없을 만큼 신속한 속도라는 것이다.

파괴된 생태계를 둘러보며 일리아나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 생각해보았다. 나무들은 모조리 땅에 쓰러져있었다. 비상 스프링클러들이 작동해서 몇몇 수액은 무사했지만, 불의 열기가 돔의 지붕을 부서뜨렸다.

바닥에는 그슬린 민달팽이들이 가득했다. 일리아나는 그것들이 레이놀드의 실험체들이라 생각했다. 용기와 우리가 불탔을 때 풀려난 것이리라.

곧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덩굴을 하나 스쳐 지나가자 무수한 잔타르 민달팽이가 그녀 위로 떨어졌다. 다행히 그녀의 머리 주변이나 산소통에는 닿지 않았지만, 몇몇이 일리아나의 오른팔에 떨어졌고 그녀가 반응하기 이전에 반사적으로 산성 액을 내뿜기 시작했다. 나머지는 덩굴에 떨어져 수액에 불을 붙였다. 순간적으로 타오른 불꽃은 옮겨 붙을 곳이 없어 이내 꺼졌다.

하지만 일리아나의 손등은 불이 붙은 것처럼 뜨거웠다. 극심한 고통이 팔뚝으로 전해졌고 그녀는 민달팽이들이 자신의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고통을 전달할 신경 기능이 손에 더 몰려있을 뿐이었다.

장갑을 뜯어낸 그녀는 서둘러 냉각복의 팔 부위를 어깨에서 찢어내며 공포에 질렸다. 손과 팔에서 민달팽이의 산성 액이 연기를 내며 피부 속으로 타들어가고 있었다. 땅에 내팽개친 냉각복의 팔 부분과 장갑은 얼음처럼 녹아 내렸다. 산성 액은 그녀의 주 근육을 보호하는 신소재 강철마저도 녹여버렸다.

일리아나는 비명을 질렀다. 전쟁 중에서도 이런 고통은 느껴보지 못했다. 게다가 적에게서 받은 상처도 아니다. 자신의 부주의로 생긴 멍청한 부상이었다. 마치 풋내기 병사가 된듯한 느낌이 든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저주했다. 댄의 말을 듣고 중앙 기지에서 기다리면서 대피 준비나 도와줄 걸 그랬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 고집이 그녀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었다. 일리아나는 왼손으로 P220 을 부여잡았다. 어떤 방법인지는 몰라도 민달팽이들이 여기서 풀려나서 수액에 불이 붙었고 생태계를 초토화시켰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파괴된 중앙 시설로 돌아갔다. 민달팽이와 불 붙은 수액만으로 벌어진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하다. 그럼 또 무엇이? 두 번째 통로를 지나 민달팽이 지구에 도착한

일리아나는 첫 번째 물음의 답을 알았다. 대기 관리기의 내부 문이 경첩에서 뜯겨 바닥에 던져져 있었다. 구부러지고 손상된 채로.

내부 문은 마치 지표면에 지각 운동에 일어난 것처럼 뻥 뚫려 있었다. 민달팽이들이 무슨 이유로 문을 공격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문이 있던 곳을 지나며 소총을 거머쥐었다. 아직 남아있는 그녀의 오른팔은 이제 아프지 않았다. 그저 쑤신다는 느낌이 덤덤하게 들 뿐. 쇼크 상태에 돌입 직전이든가 뇌가 그쪽 부분의 신경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나 보다. 어쨌든 좋은 신호는 아니다. 여기서 살아 나가더라도 그녀의 오른팔은 이제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문득 회사에서 그녀에게 인공수족을 제공해줄지 의문이 들었다.

갑자기 주위에서 공허하고 냉소적인 웃음소리가 들렸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열기가 더욱 심하게 느껴졌다. 팔 부분을 뜯어냈을 때 봉합된 부분이 분리되어 냉각복의 온도 조절 장치가 작동을 멈춘 것이다. 땀이 그녀의 얼굴을 뒤덮었다. 눈이 점점 따가워진다.

출입구에 있는 레이놀드의 시체에 걸려 넘어질 뻔 한 일리아나는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난자되어있었다. 가까스로 인간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아마 일리아나와 댄에게 송신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으리라.

바깥에서 본 균열은 이 생태계에 있었다. 하지만 반대쪽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야말로 난장판이다. 확산기 스크린이 산산조각난 채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열대 우림의 상태를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조심스레 가꾸어진 식물들은 이제 짓밟히고 꺾여 있다. 몇몇 큼지막한 나무들은 뿌리 채 뽑혀 쓰러져있다.

아래를 바라본 그녀는 혹시나 민달팽이들이 더 있나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무엇이 이 모든 것을 저질렀든 간에 일단 야생 동물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바닥 타일에는 단지 발톱 자국만이 있는 게 아니었다. 그슬린 흔적. 그리고 바닥에 박힌 톱니 모양의 등뼈. 짓밟힌 폐허. 너무나도 익숙해서 구역질이 나올 것 같다.

모퉁이 너머 덩굴이 무성한 지역 너머 그림자에서 무언가가 번쩍하며 지나갔다. 일리아나는 발소리를 죽이며 그것에게 다가갔다. 무의식적으로 그녀는 몸을 틀어 좀 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아직까지 서있는 벽에 등을 댄 채 일리아나는 천천히 전진했다. 무언가 기분 나쁜 느낌이 그녀의 직감을 자극했다. 냄새를 제대로 맡기 위해 코에서 산소 튜브도 떼어내 보았다. 그리고는 황급히 다시 끼웠다. 지독한 냄새다. 무언가 부패하는 냄새와 강한 산성의 냄새가 뒤섞인 악취.

모퉁이를 돌자 그녀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끓어오르는 피부 조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 제각각 썩어가고 되살아나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 지독한 냄새의 수증기가 위로 솟아올라 파괴된 돔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리고 중앙에는 한때 잔타르 민달팽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물이 천천히 뒤돌아 그녀를 바라보았다. 크기가 일반적인 민달팽이의 두 배에 달하는 놈이었다. 갈색 피부는 점차 두꺼운 갑피로 변해갔고 보랏빛의 박동치는 세포 조직이 듬성듬성 눈에 띠었다.

놈은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일리아나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첫 번째 생태계에서 그녀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찾았다. 불에 타지 않은, 갈색 액체가 든 용기. 민달팽이 지구로 그것을 들고 온 그녀는 썩어가는 살점 주위에 그것을 놓고 왼팔로 덮개를 뜯었다.

다시 일어난 그녀는 진화하고 있는 민달팽이에게 액체를 뿌렸다. 그리고 P220 을 조준하여 퍼져가는 수액을 맞추었다.

밝은 빛이 퍼져나가다 이내 검은색 연기가 방을 메웠다. 뒤로 물러선 그녀는 덩굴과 무너진 나무 사이를 비틀거리며 넘어갔다. 도망치려고 돌아선 순간, 그녀는 깨진 돔 밖으로 거대하고 어두운 물체를 보았다. 산의 구석진 곳에 있는 그것은 어둡고 멀어서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웠지만, 그녀는 그것이 베히모스임을 즉각 알았다.

발톱 자국, 발사된 등뼈, 진화하는 잔타르 민달팽이… 모두 우연이 일치일 수도 있으리라. 하지만 이제는 확실하다.

저그가 돌아왔다. 그리고 가르잭스에 공격을 감행한 것이다.

* * *

저그는 산성 액으로 약해진 문을 마치 젖은 종이 조각처럼 찢어발겼다. 브라흐는 뒤돌아서 소총으로 저글링 네 마리를 쓰러뜨렸지만 다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브라흐, 뛰어요!" 리가 외쳤다. 귀가 멎을 듯한 총소리 때문에 그녀는 브라흐처럼 헬멧을 쓰고 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잠시 했다. 이미 다음 문에 도착한 그녀는 잠금 장치에 손을 올려두었다. 리가 비상용 차단 장치를 작동시키자 브라흐는 닫히는 문 밑으로 몸을 숙여 뛰어들어왔다. 이제 두 군데만 더 지나면 된다.

저그가 문을 돌파하기 전에 다음 문에 도착하자 브라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점차 저그 추적자들과 거리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휘관, 대피 준비가 모두 완료되었다. 현 위치는 어디인가?" 리의 헤드셋에서 구축함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격납고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대기해주세요."

마지막 문이 열리고 격납고가 눈에 들어왔다. 남아있는 건 브라흐의 손상된 밴시와 해병들이 가득 찬 마지막 의료선뿐. 의료선은 승강대를 열어 마지막 인원인 리와 브라흐를 기다리고 있었다. 엔진 소리가 점차 커져갔고, 조종사는 어서 조종간을 당겨 이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줄행랑을 치고 싶어했다.

둘은 격납고를 가로질렀다. 앞에 선 리는 전속력으로 질주했다. 브라흐가 그녀를 들어 같이 의료선에 도달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천천히 움직이며 후방을 사수했다. 승강대에 다가가자

리는 둔탁하게 우지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뒤에서. 어깨너머로 돌아보니 자동화 문 두 개가 박살이 나면서 히드라리스크와 바퀴들이 격납고로 들어왔다.

놈들을 본 브라흐는 소총을 들고 곧장 공격을 시작했다. "계속 가!" 헬멧 통신기로 그가 소리쳤다. "내가 엄호할게!"

리는 뒤돌아 서서 브라흐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전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 그리고 브라흐의 전투복이라면 몇 초 만에 의료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브라흐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어떤 위험을 감수할 지도. "안 됩니다," 달리면서 그녀가 소리쳤다. "승강대로 오세요! 놈들이 따라잡기 전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브라흐는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히드라리스크들에게 소총을 갈겨 두 마리를 죽였다. 그리고는 뒷걸음질을 치며 짧게 공격을 이어갔다. 저그 시체가 점차 쌓여가며 통로를 막았다. 뒤에 있는 저그들은 그것들을 밀어내느라 노력했다. "그냥 확실하게 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어서 타! 바로 뒤따라 갈게!"

리는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일단 승강대에 오른 그녀는 곧바로 브라흐에게 소리쳤다.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그 둔해빠진 엉덩이를 당장 이곳에 대령하세요, 대위!"

브라흐는 승강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이따금씩 뒤로 돌아 저그에게 총알을 퍼붓는 것도 잊지 않았다. 바퀴들에게 마지막 한 번 공격을 하고는 승강대로 뛰어올랐다. 하지만 브라흐는

너무 시간을 지체했다. 생각보다 저그가 너무 가까이 온 것이다. 앞에 있는 바퀴는 앞다리로 일어나 아귀를 열어 산성 타액을 브라흐에게 내뱉었다. 오른쪽 무릎 위에 타액을 맞은 브라흐는 중심을 잃었다. 앞으로 넘어진 그는 리의 옆에 나동그라졌다. 그리고 리는 브라흐의 신소재 강철 전투복이 연기와 함께 녹아 내리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브라흐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헬멧의 마이크에도 불구하고 워낙 큰 엔진 소리 때문에 리는 그것을 잘 듣지 못했다. 괴로움에 얼굴을 한껏 찡그린 그는 무의식적으로 팔을 흔들어 리를 의료선 바닥에 짓눌렀다. 전투복의 무게를 견디며 그녀는 벨트 주위로 손을 뻗었다. 어깨를 비틀어 벨트에서 겨우 수류탄을 꺼낸 그녀는 어깨에서 우드득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고통은 전해지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부드럽고 차가운 수류탄을 거머쥐었다. 그리고 뒤로 팔을 힘껏 젖히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팔을 앞으로 휘둘러 수류탄을 던졌다.

“빨리! 빨리! 승강대를 닫으세요!” 헤드셋으로 그녀가 소리쳤다. 수류탄은 공기를 가르고 격납고에 떨어지기 전에 반짝거리는 햇빛을 잠시 받았다. 그리고 브라흐를 공격한 바퀴의 입 속에 떨어졌다.

승강대가 닫히는 찰나에 리는 저그가 폭발하는 것을 보았다. 해병 둘 중 하나가 브라흐를 등에 짊어졌고 다른 한 명은 조종사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엔진이 최대치로 가동되면서 의료선은 공중으로 떴다. 그리고 90 도로 꺾은 다음, 후방에 있는 저그에게 추진기 불길을 발사해 놈들을 나가떨어지게 만들었다. 마침내 의료선은 크라쿨브 기지에서 벗어났다.

아직도 바닥에 누워있는 브라흐는 리에게 고개를 돌려 헬멧 창을 들어올렸다. 미소를 지은 그는 잠시 동안 고통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다 다시 웃었다.

"역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니까."

* * *

마지막 생태계와의 연결이 끊기자 대니온은 공포에 질리며 모든 것을 체념했다. 구호선이 오기까지 아직 30 분이나 남았다. 중앙 기지가 그때까지 버틸지 의문이다. 만약 전력이 끊긴다면 구호선은 수동으로 좌표를 완성하여 기지를 찾고 착륙해야 한다. 하지만 울창한 열대 우림 산지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적당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다. 바로 가르잭스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이 내린 곳이다. 하지만 6 개월이 지난 지금 열대 우림이 그곳까지 뻗어나갔고 상공에서는 식별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서쪽에서는 큰 태풍이 오고 있다.

대니온이 조레스와 연락하여 돌아오라고 부추긴 지 한 시간이 지났다. 그 이후로 대니오는 그녀를 연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휴게실에 들어가니 칼린스와 다른 직원들이 모여있었다. 두 명이 없다.

"어, 헤스켄과 디르디스는 어딨나요?"

칼린스가 그를 쏘아보았다. "아직 숙소에서 짐을 꾸리고 있네. 괜찮아. 시간은 많으니까."

휴게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술을 들이키고 있었다. 대부분은 불평불만이 가득했다. 가끔씩 대니온을 쏘아보는 사람도 있었다. 정전에 대해서는 이미 이야기가 오고 갔고, 헤스켄은 대니온과 조레스가 "딱 봐도 시설 관리 미흡"인 문제에 관해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니온은 3 구역이 완파되었다는 조레스의 보고를 언급했했지만 헤스켄은 완고했다. 나무가 쓰러졌거나 바위가 산에서 굴러 떨어졌겠지. 아니면 지나가던 소행성 하나가 생태계 위로 떨어졌든가.

모든 과학자들이 불평을 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몇몇은 이런 고립된 상황을 처음 접해보았고 많이 예민해져 있었다. 하지만 연구 자료 소실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다. 대니온마저도. 그는 원래 물리학자였고 여가 시간을 쪼개서 심우주 전파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전송 받았으나, 통신망이 불안정해진 이후 데이터 변질의 가능성이 대두했다. 코랄로 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데이터가 휴지조각이 될 것이다. 미쳐버리겠군.

폭발음이 그의 생각을 비집고 들어왔다. "뭐야, 방금 그건?"

칼린스는 헤스켄의 숙소를 가리켰다. "헤스켄이 아마 자기 그림자를 보고 짐 가방을 떨어뜨렸나 보군." 과학자 몇 명이 웃었다. 헤스켄의 초조한 성격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아마 대피 명령이 그를 더욱 정신 없게 만들었으리라.

두 번째 폭발음이 들려왔다. 대니온은 휴게실을 가로 질렀다. 짐과 의자를 피해가며 헤스켄의 숙소로 가려는 순간, 그의 개인 통신 장치가 울렸다.

"...기지 응답... 조레스... 댄, 거기 있어?"

잡음이 심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댄은 다행이라 생각했다. "일리아나, 도대체 어디야? 지난 30 분 동안 너와 연결하려고 했었어."

"안 좋은 소식이야, 댄... 생태계가 완전히... 저그에게. 분명히... 너에게 알리려..."

헤스켄의 숙소에서 들리던 폭발음이 이제 다른 곳에서도 들려왔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울려 퍼졌다.

대니온은 다른 과학자들에게 소리쳤다. "망할, 놈들이 왔어! 전부 무기고로 대피해! 다들 뛰라고!" 뒤돌아선 그는 "무기고"가 어느 쪽인지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찬장 안에 소총 여섯 자루가 있는 장소를 무기고라고 할 수 있다면. 일리아나의 말이 맞는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물론 잡음 때문에 그녀의 말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확실하다.

대니온, 칼린스, 그리고 다른 과학자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 붙었다. 기지 통로에 수많은 저그가 휴게실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먹어 치우기 위해.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다.

* * *

의료선이 거칠게 착륙했다. *승리호*의 격납고는 구축함에 소속된 의료선으로 이미 꽉 차 있었다. 크라쿨브의 병력까지 도착하자 공간은 포화 상태에 다다랐다.

하지만 거친 착륙이라도 크라쿨브에서 탈출했다는 사실에 다들 기뻐했다. 하차한 해병들은 이미 도착해있던 자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의료팀이 신속하게 도착하여 브라흐와 부상당한 다른 해병들을 응급실로 인도했다. 리 또한 따라갈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그녀는 의료선의 조종석 문을 열고는 조종사의 헤드셋을 잡아챘다.

"지휘관님, 트라이커 소령입니다."

"승선을 환영한다, 소령. 너의 부대원들이 네가 마지막이라고—"

"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구축함을 띄우세요, 지금 당장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저궤도에서 한시 바삐 벗어나야 합니다!"

"불가능하다, 소령. 크라쿨브 기지를 핵무기로 정리한 다음에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우리가 왜 저 아래에서 꾸물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그와 통성명이라도 하는 줄 아셨나요?"

"...아, 그렇군. 알겠다."

* * *

테란은 도망쳤다. 언제가 그랬듯이 겁쟁이처럼. 그리고 소중한 기지마저도 버렸지.

케리건은 저그의 눈으로 테란이 내버려두고 간 것들을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술은 노후했거나 저그에게 쓸모가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기지 내에서 어떤 생체 반응도 감지하지 못했다. 그럴 만도 하다. 여기는 감시 위성이니까. 정보 수집이 기지의 주 목적이었으리라.

저글링들은 흩어져서 기지를 돌아다니며 모든 것을 기억하고 표시했다. 뮤탈리스크들은 기지의 외부에서 똑같은 행동을 했다. 케리건은 그 무엇도 놓치지 않는다.

히드라리스크와 바퀴들은 기지를 계속해서 탐색하다가 중추 시설에 도착했다. 이 버려진 위성에 테란들이 남긴 정보가 있다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케리건은 바퀴 하나를 앞장세워 문을 파괴하게 했다. 안쪽에는 빛과 전자음이 가득한 테란 시설이 있었다. 기계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인간들을 기다리면서 반복적으로 신호를 내보내고 있다.

첫 번째 바퀴가 용해된 문을 가로지르면서 열기를 감지했다. 케리건도 이를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다고 여겼다. 하지만 더 많은 저그들이 이를 느끼자 무언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이 있던 곳에서부터 불길이 벽을 타고 옮겨 붙기 시작했다. 바퀴들은 익숙한 냄새를 감지했다. 하나된 의식 속에서 기억의 단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습한 열대 우림. 장엄한 산지. 그리고 나무의 수액.

화염은 점점 지붕을 따라 퍼져나갔다. 작은 파장이 반응을 일으키며 적외선을 발산했다. 점차 급박해지는 기계음이 대기를 가득 채웠다.

버려진 크라쿨브 위성의 깊은 곳, 장치들이 웅웅거리며 명령을 수행했다.

* * *

비명소리를 듣자마자 대니온과의 연결이 끊어졌다. 그리고 일리아나는 그것이 통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 3 생태계에서 탈출하면서 그녀는 놈들의 흔적을 보았다. 상자에 덩굴 수액을 담을 때에도 멀리서 놈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지프를 한 손으로 비틀거리며 운전하면서 그녀는 다른 구역에서 폭발음이 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거기다가 이제 가르잭스 특유의 열대 폭풍우마저도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내며 머리 위에 맴돌았다.

부상당한 오른팔은 옆에서 무기력하게 흔들렸다. 더 악화된 것 같다. 마치 산성이 퍼지는 것처럼. 흙으로 된 평평한 길을 지나면서도 지프가 움직일 때마다 복부가 지끈거렸다. 산성 액 때문일까? 아니면 기지에 도달해야 한다는 급박함 때문일까? 알 수 없다. 알 필요도 없다.

5 분 전만 하더라도 그녀가 모퉁이를 돌 때 백미러에서 히드라리스크 하나가 숲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이후로 아직 소식이 없으니 아마 자신을 알아채지 못 한 것 같다.

아니었다. 숲에서 저글링 하나가 나무를 으깨며 튀어나와 지프의 전면에 부딪혔다. 무의식적으로 소리를 지른 그녀는 방향을 바꾸려고 했지만 세차게 내리는 비가 흙 도로를

진흙탕으로 바꾸어놓았고 지프는 결국 두터운 갑피에 부딪혔다. 신소재 강철판이 머리 위를 지나 길바닥에 떨어졌다. 전방 차축이 찌그러지면서 지프는 앞으로 쏠렸다.

아직은 움직인다. 가까스로. 기지 쪽에서는 이미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녀는 전쟁에서 저그가 테란 구조물에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잘 알고 있다.

지프가 백여 미터를 툴툴거리며 달리다가 일리아나는 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것을 느꼈다. 백미러로 들여다보니 저글링 무리가 자신을 쫓고 있었다. 지프의 후미가 땅으로 떨어지고 지면에 쓸리자 지프의 방향이 우림 쪽으로 쏠리기 시작했다.

도로 옆에 있는 나무에 들이받기 전에 가까스로 그녀는 지프에서 뛰쳐나왔다. 부상당한 팔이 땅에 부딪히고 그나마 온건했던 뼈가 부러지고 으깨지면서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몸을 다시 일으킨 그녀는 지프에서 용기가 들어있는 상자를 끄집어내었다. 대부분 충격 때문에 깨져 있었지만 몇 개는 아직 멀쩡했다. 도로의 넓이, 그리고 다가오는 저그와의 거리를 어림잡은 그녀는 놈들을 저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불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비가 너무 세차게 쏟아지지 않는 한. 만약 태풍이 지나간다면 불길이 숲으로 번져 기지에 도착할 때까지 저그를 막을 수도 있으리라.

물론 자기 자신도 휩쓸려 타 죽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녀는 시도해보기로 했다. 그것만은 확실하다. 죽더라도 저 빌어먹을 놈들을 하나라도 더 없애버리고 죽겠다.

상자에서 첫 번째 용기를 꺼낸 그녀는… 머리 위에서 엔진들의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것에 놀랐다. 행성 도약함이 구름을 뚫고 기지로 하강하기 시작했다. *하긴, 저 정도 연기면 해병이 조종사로 있더라도 눈치챌 수 있겠군*. 일리아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조종사가 통신망에 가까스로 접속했다. 잡음이 가득했지만. *"가르잭스 기지... 행성 도약함 구조... 트라이커 중위다. 우리는... 확보했다. 신속히..."*

"구조선, 여기는 선임 보안 담당관 일리아나 조레스입니다! 기지는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이미 함락되었습니다! 제가 유일한 생존자이고, 흙 도로에서 500 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빌어먹을 저그 무리 곁에 있어요. 제 말 들립니까?"

잠시 동안 통신망에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저그가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다.

"알겠다... 리 담당관... 함선을 돌려라... 위치를 추적... 대기하라."

일리아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잡음 때문에 자신의 말을 반만 알아들은 것 같다. 그리고 이름도. 그래도 무사히 수신했으니 괜찮겠지. 이제 저들이 착륙할 때까지 버티는 일만 남았다…

몰려오는 저그에게 수액 용기를 던진 그녀는 P220 을 난사했다.

* * *

리는 착륙 지점 모니터에서 후방을 비추는 화면을 보았다. 의무병들이 브라흐를 들것에 실어 후송하고 있었다.

크라쿨브는 잠시 동안 흔들리다가 폭발했다. 핵무기의 열기로 생긴 환한 빛. 그리고 완전 소멸.

"이야." 의무관 하나가 말했다. "저걸… 저걸 소령님이 하신 겁니까? 아슬아슬했네요."

"기지를 건설할 때 중심부에 핵을 설치했습니다. 자폭 장치가 실패하면 큰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걸 화재 경보기에 연결했습니다. 저그가 불만 붙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말입니다."

"저그가 언제부터 화기를 사용했죠.?"

리가 씨익 웃었다. "뭐, 우리가 조금 도와줬습니다. 보관함에 기념품을 가지고 다녔거든요. 수액이 들어 있는 용기인데—아닙니다. 무슨 상관이에요. 성공했잖습니까."

브라흐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헷… 망할… 민달팽이들."

리도 브라흐의 손을 쥐었다. "네, 알아요." 그리고는 의무병들을 바라보아 브라흐의 다리를 가리켰다. "자, 이제 잘 들으세요. 이건 바퀴가 공격한 상처입니다. 산성 액에는 신경계를 타고 퍼지는 병원체가 함유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노 치료제는 상처가 악화되는 것을 더욱 가속화할 뿐입니다. 감염을 중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다리를 통째로 알칼리에 담그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살균 바이러스를 분사한 뒤에 소독하고 응급처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면, 아마 절단해야 될 겁니다."

그녀의 솔직함에 의무관이 잠시 멍한 모습을 보였다. "어, 저기요… 고맙긴 한데 이런 얘기 사석에서 나누시면 안 될까요?"

브라흐가 희미하게 웃었다. "내 아내야… 이 멍청아. 그리고 리는 너나… 널 가르친 교수들보다… 바퀴들에 대해 잘 알아… 보여줘 봐, 자기."

브라흐가 리의 손을 놓았다. 의무병의 눈 앞에 팔을 올린 그녀는 손바닥을 위로 보인 채 장갑을 벗었다. 의무관은 자신의 눈앞에 보인 광경을 보고 숨이 턱 막혔다. 신소재 강철, 신경 감지 내골격, 그리고 은은하게 빛나는 상태표시등.

"인공수족이군요."

"어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팔을 잃었는지 눈치가 빠르다면 알겠죠?"

브라흐는 웃다가 기침을 하더니 가래를 뱉었다. 그리고 다시 리의 손을 잡았다. 리는 의무병들이 들것으로 브라흐를 후송하는 도중에도 계속 옆에 있었다. "매번 말하지만… 정말 천생연분이라니까."

"여기 있을게요, 브라흐얀." 그녀가 브라흐의 손을 잡았다. "빚을 두 번이나 졌네요."

브라흐가 웃었다. "그 뭐냐… 데자뷰라고 혹시 알아, 일리아나?"

그를 부여잡으며 둘은 의무실로 들어갔다.

끝.